

산중불교의 미래 생존전략 ...

정념스님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 198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오대산 상원사 주지와 나눈의 집 이사,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호법보좌위원장, 강원불교 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월정사 주지로 재임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벌여온 정념 스님은 또한 2012년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포장을 받기도 했다.

오대산은 1,400여년 전 자장율사가 개산한 후 불교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월정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 도제 양상에 힘쓴 탄허 스님, 가람 복원에 앞장선 희찬 스님이 주석하며 울곧은 수행가풍을 잇고 있다.

이 유서깊은 천년 도량은 해마다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전통은 계승하고, 현대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는 통섭의 공간, 열린 공간으로 발전중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확장'을 강조하며, 지난 2003년부터 조계종 제 4교구 본사인 월정사와 말사의 중무행정을 진두지휘하는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이 있다.

문화포교 새 모델 제시...오대산 문화축전 등

스님은 단기출가학교와 같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불교계에서 흔치 않는 대박을 터트리려는가하면, 때로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등을 맡으며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갈등에 대해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통해 오대산으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은다. 문화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계속 제시중이다.

정념 스님은 "10월 11일부터 약 1주일간 시작되는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은 벌써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문화시대를 맞아 '생명·명상·치유' 등을 주제로 잡고 많은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불교문화 축제의 장으로 펼칠 것입니다. 오대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월정사라는 전통 수행공간의 가치를 심분 활용해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문화축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테마축제, 지역을 활성화 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강시원제를 비롯해 오대생물 합수식, 산사음악회, 승가학인 법교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월정사를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키고 불교문화자원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생명과 나눔, 평화의 한마당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탠다는 것이 올해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월정사의 많은 행사중에 많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또 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 대회'다. 이 역시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상원사까지 걷는다.

정념 스님은 걷기대회에 대중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위기에 직면한 현대 문명에 숲은 희망을 던져줍니다. 걷기 대회는 천년 숲길을 걸으며 우리 사회의 희망인 숲이 주는 지혜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자리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숲에서 나시고 숲길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불교에서의 길은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을 의미하며, 숲은 생명이자 정신적 쉼터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대산 천년 숲길은 가장 한국적인 숲길로서 인공적인 포장물 거꾸한 생명의 길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전나무 숲길과 박물관 옛길을 걸으면서 가장 한국적인 숲의 향기를 맡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민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갈

수 있기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11년 넘은 단기출가학교 히트...블루오션 적중

월정사는 조계종 25개 교구 중에서도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사찰로 꼽힌다. 단기출가학교 수련법회 템플스테이 불교교양대학 문화대학 등 불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된다. 그중 가장 히트를 친 대박상품은 역시 11년전 처음 시행한 단기출가학교다. 월정사가 전국에 가장 많이 알려지게 한 일등공신이다. 유명인부터 소시민까지 2000여 도반(道伴)이 배출됐다.

저마다 크고 작은 고민과 사연을 가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이 스님과 똑같이 한 달간 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단기출가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행을 통한 마음 치유와 더불어 사찰음식을 통한 몸 치유 프로그램 때문이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후문도 들린다. 누구도 이 어려운 체험을 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건만 무엇이 이들을 단기출가학교로 이끌었을까.

2003년부터 주지 말으며 월정사 탈바꿈

문화축전, 걷기대회 등 기획 호응 지역 열린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단기출가학교 대박... 2천여 도반 배출

지원자 대거 몰리고 경쟁률 높아져 '자기성찰' '진리추구' 등 동기 부여

수행·문화·복지 등 3대 비전 제시

'만발선원' '문수선원' 등 잇달아 개원 문화올림픽 중심될 '탑돌이' 재현

이들에게 출가수행 체험의 기회를 마련한 정념 스님은 "도시에서의 생활과 변화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삶에 대한 무상감을 느끼는 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각 사찰의 수련법회나 템플스테이 등에 몰리는 사람들이 이를 말해주지요. 나이 드신 분에게는 오욕락(五欲樂)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 자기성찰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은 자기를 확립하고 삶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수행자적 삶이란 진리를 추구하고 이상적 인격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을 갖추고서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단기출가학교입니다." 월정사가 단기출가학교를 열자마자 실제로 머리

깎고 한 달 동안 출가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려 2천여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릴만큼 폭발적 인기를 모으며 화제를 뿌려왔다.

"단기출가학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추진은 하면서도 솔직히 이 힘든 과정에 과연 얼마나 옮겨 걱정도 했지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갖가지 사연을 간직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고 회가 거듭될수록 경쟁률도 높아져 지금 이 시대가 이 같은 수행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태극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단기출가체험이 우리가 군복무하듯 일생에 한 번은 하는 것이 불문율로 돼있지만 한국 불교에선 없었거든요."

출가수행을 체험하고 싶어서는 사회일반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만든 것이 단기출가학교라는 설명이다. 정념 스님은 '블루오션 전략'을 절집에 도입해 성공시킨 셈이다.

산중사찰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 된다.

실제로 정념 스님은 산중 사찰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신해야 한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쏟아냈다.

지난 2003년 11월 주지 부임 이후 월정사가 벌여온 산사영화제,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월정사 주지대 평창군 족구대회와 축구대회, 평창군민 노래자랑대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한·중 오대산 수행 교류,미얀마 마하시수도원과 자매결연 및 수행 교류,한암대조사 수행학림, 전나무 숲길 도로포장 제거 추진 등의 행사 등 손에 꼽기 버거울 정도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너무 산중(山中) 중심이어서 속속(俗俗)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의 물을 끌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묘법(妙法)도 멀리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정념 스님은 출가 직후부터 은사인 만화 스님을 모시고 참선수행의 길로 나섰고 1992년부터 12년간 상원사 주지를 맡으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행대중과 함께 안거에 들었던 수좌 출신이다. 이러한 수행 정진은 월정사 주지를 맡은 10여년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산중의 정적인 수행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寺'는 '社'가 아니지만 경영마인드 분명 필요

"사찰의 경영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불교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 화석화되고 말 겁니다."

정념 스님은 "절집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정사의 수입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걷는 문화재관람료가 절반가량입니다. 나머지는 기도비·불전 보시금·인등수입 등이지만 사찰의 전통적인 수입기반은 갈수록 줄어들어 현실이 지요."

새로운 경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정념 스님은 일찍이 10여년전부터 월정사의 비전을 수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로 불교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정립하다

21세기의 나란다 불교대학 '영산불교대학', 560명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정견(正見)을 연마하는 한국 최고의 불교교양대학



영산불교대학 수업장면

■ 2014년 입학생 560명 감로의 정병으로 신심을 불태우다 : 최고 교수진의 열정,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

영산불교대학은 많은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3월에 개교한 이래로 해마다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과 성원으로 매 학기마다 수강하는 불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분원에서 불교대학을 개원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내외의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통신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560여 명에 달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불자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정병에 정통한 우수한 강사진의 열정을 통해 반대하고 심오한 부처

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 세계불교를 쇄신시킬 정병의 가르침

영산불교대학은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경전 학습을 기초로 해서 두분 큰 스님께서 저술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2>에서 밝힌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32상 80중호를 갖춘 빛의 인격체로서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수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부처님 실존론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주체인 인간 영혼체의 깊은 비밀과 실체를 밝힌 인간 본체론 ▶사후에 가는 지옥·천상 등 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의 실존과 정확한 실상을 밝힌 윤회·해탈론 ▶인간과 우주만물 탄생의 지고한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힌 우주론(공자자성기론)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타락중심의 팔정도칭명영불 수행론 등입니다. 특히 불교를 증득하신 두분 큰스님께서 전하는 부처님세계의 소식과 부처님 말씀을 불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 영산불교대학의 교육목표 : 세계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과 정견을 갖춘 불자 양성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무아론(無我論)'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본체인 영혼체의 존재나



2013년 4학년 졸업식

아기 부처님의 실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보살이 되는 정통수행법도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로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되어온 이 무아론을 바로잡아, 무아는 인간 영혼체를 부정한 교설이 아니라, '현상계의 내(我)의 실재없음'과 '나(我)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두 가지의 미로 해석해야 함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불자들이 어려움들에게 '영혼체 윤회론'이라는 신교설을 불교사상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서 기존 불교의 추상적인 '불신론(佛身論·삼신론)'을, 불교를 증득한 두분 큰스님의 수행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연화세계)'에 여여히 계심을 증명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禪宗)의 영향으로 '마음이 부처' 라는 잘못된 교설에 익숙해져 있고 또 반대편 8만정경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영산불교대학은 정견과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해드립니다. 영산불교대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 2600년만에 내리는 감로의 정병 :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

로 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무아속

초가불교는 부처님 재세시의 직접 교설을 담은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으로서 생천(生天)·해탈(아라한) 중심의 기본 가르침이고,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에 따라 사바세계에 몸 받아온 붓다의 화신들께서 쓰신 대승경전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초가불교 보다 한 차원 높지만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영산불교 신불교는 현지사의 광명인덕·자재만현 두분 큰스님께서 불교를 증득하시고 부처님 보신불신! 노사나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펼쳐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세계불교계의 애곡되고 왜소화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대승경전에서 미비된 교설을 보완한, 심계를 벗어난 보살 붓다됨을 목표로 하는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영산불교대학에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의 만자의 가르침을 만나보십시오.



졸업식 정기자향

출가 : 청정한 수행의 길,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길

지금 현지사로 젊은 인재들이 출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참선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사를 만난 이후 영봉이 정병임을 알았습니다."

- 원오행자 (고려대 영문과 졸업)

"저는 현지사의 스님이 되는 길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 대성행자 (00승과대학 졸업)

"어렸을때 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 자성행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로 행복해 지는 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주행자 (이화여대 동덕여자대학원 한문학과 졸업)